치안정감 내정 고평기 제주청장 '승진 무산'

정부 지난 1일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
실종사건 허위종결 여파… 지휘·감독 책임 물은 듯
신임 제주경찰청장에 김병찬 경무인사기획관 임명

고평기 전 제주청장

김병찬 신임 제주청장

정부가 지난 1일 한밤에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고평기(57) 제주경찰청장은 부하 경찰관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여파로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치안정감·치안감 승진자 내정에 따른 후속 인사 조치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12일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을 비롯해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치안감 4명을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로 결정해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차기 경찰청장 유력 후보군으로 여겨진다. 지역 사회에선 고 청장이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에 포함되자 제주 최초 치안 총수 탄생의 발판이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고 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치안감 보직인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전보됐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행안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 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지, 행안부장관 제청 단계에서 승진 내정자에서 빠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고 청장의 승진 무산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가 터지면서 제기된 지휘·감독 책임론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고 청장은 지난달 27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제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주청 지휘부와 함께 고인과 유가족, 도민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경찰 내부에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는 속에 이날 오전 제주청 간부들과 간단한 이임식을 가진 고 청장은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고 청장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고 가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경찰의 잘못은 지적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제주 치안이 나쁘지 않은데도 나쁘다고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 바로잡았으면 한다. (제주청을 떠나지만)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앞으로 경찰청 생안국에서 실종 문제 후속 대책 등을 총괄할 것으로 전해진다.

신임 제주경찰청장에는 김병찬(58)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임명됐다.

치안감인 김 신임 청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찰대학교(7기)를 졸업한 후 1991년 경위로 경찰에 임명됐다. 2023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에 이어 2024년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치안감을 달았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있었다.

김 신임 청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3일부터 업무에 돌입한다.

이상민·박소정기자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가출 청소년 기록도 삭제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30대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15건 가운데 가출 학생 등 실종아동법상의 보호대상자가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경찰 내부 시스템이다. 이 15건은 실종신고가 들어온 당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으나 A경장이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 코드를 허위로 입력해 해제(삭제)한 사례다.

다만 경찰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경장이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간 서부서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298건 중 기존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60대 남성 실종사건' 등 2건 외에 추가로 허위종결·해제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기존 2건의 사건처럼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후 사건을 종결한 사례다. 현재까지 전수조사 결과 해당 실종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소정기자

더울땐 그늘 벤치가 최고 2일 제주시 용담동 용연다리 인근 벤치에 주민들이 앉아 늦더위를 피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벌초 철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최근 열흘 새 7건 발생해 5명 병원 이송

본격적인 벌초 시기가 다가오며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벌초 등 예초 작업 중 안전사고가 7건 발생해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27일 오전 7시10분쯤 추자도에서는 70대 남성이 예초 작업 중 낫에 허벅지를 베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8분쯤 제주시 도련2동에서는 50대 남성이 벌초를 하던 중 얼굴을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쓰러지는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32분쯤 서귀포시 하예동에서는 50대 남성이 벌초 후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지난달 31일 오전 7시7분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는 60대 남성이 벌초 중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달 21일 벌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주의보 발령 이후로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벌초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주말 벌초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두르지 말고 안전장비를 갖춰 작업하고, 부상을 입었을 때는 신속하게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유리기자

"가족관계 신청 연장… 명예회복 기회"

제주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안 환영 성명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4·3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공적 구제의 길이 확장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족회는 제주4·3으로 실제 가족관계와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청기간이 2년 연장되는 내용이 담긴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유족회는 "4·3의 비극은 당대의 참상에 그치지 않고 가혹한 광풍 속에서 생이별을 겪어야 했던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분 관계마저 뒤틀어놓았다"며 "그동안 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유족 개개인이 소송이나 번거로운 비송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과중한 부담을 떠안아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유족회는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이 단순한 기간 연장에 그치지 않고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와 종합적 심의를 통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열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서울 초등생 살해 협박 제주지역 중학생 입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등학생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제주지역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지역 카톡 오픈채팅방에 '천호동 초등학교 1학년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천호동 소재 초등학교 3곳에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작성자의 위치를 추적해 제주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제주서부서로 사건을 넘겼다. 양유리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큘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큘고리 / 큘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큘고리'가 있습니다!

큘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큘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큘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큘고리 작업세트 구성

큘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큘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 장원농장